

2023학년도 인문계열 모의 논술고사

1. 출제문제

- ※ 시험 시간: 100분, 답안 분량: 문제당 800 ~ 1,000자
- ※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플레이션은 물가 수준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가격은 어떤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돈의 액수를 말한다. 물가는 여러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한데 모은 뒤 이 가격들의 전반적인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다. 이런 물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물가 지수를 활용한다. 기준이 되는 특정 시점(기준연도)의 물가를 100으로 볼 때 비교하려는 연도의 물가 수준을 지수로 나타낸 것이 물가 지수이다. 2020년 물가 지수가 105.4라는 것은 기준연도로 설정한 2015년보다 물가가 5.4% 상승했다는 뜻이다.

인플레이션이 악화되어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1920년대 초 독일에서 발생한 초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배상금과 관련이 있다. 1차 대전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과 전쟁을 벌여 1919년 패배하였다. 승전국들은 패전국인 독일에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배상금 마련을 위해 독일 정부가 선택한 것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중앙은행, 즉 독일제국은행이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중앙은행은 이를 인수하기 위해 마르크를 찍어냈다. 이것은 결국 통화발행량 증가(통화증발)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조달했음을 의미한다. 통화증발의 결과는 물가상승이었다. 물가의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악순환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물가가 상승하기 전에 미리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은 더욱 가속화된다.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한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이것은 다시 물가상승의 원인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저축의 유인이 줄어든다. 또한 채무자들은 채무의 상환을 계속 미루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물가상승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의 실질 가치가 떨어져 상환을 미룰수록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결국 투자의 위축과 기업의 부도로 이어진다.

독일에서 급속한 물가상승이 나타난 더욱 중요한 이유는 마르크화의 급격한 환율절하, 즉 환율상승이었다. 물가의 상승은 곧 화폐가치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환거래자들은 마르크화를 팔고 가치가 안정된 다른 통화를 매입하려고 한다. 그리고 독일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의 예금이나 자산이 독일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마르크화의 환율이 절하된다. 미국 달러 대비 독일 마르크화 환율은 1921년 초 60마르크 수준이었다. 그 후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환율도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1923년 11월 달러 대비 환율은 무려 4조 2천억 마르크에 이르렀다. 환율의 상승은 수입물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이것은 다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었다. 즉 인플레이션은 환율절하를 가져오고, 환율절하는 수입물가상승을 통해 다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했다. 전후 국토가 쪼그라든 오스트리아도 초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나>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상승하는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병목 경제(The bottleneck economy)'라고 표현했다. 2021년 들어 전 세계적으로 철강부터 구리, 목재, 반도체까지 원자재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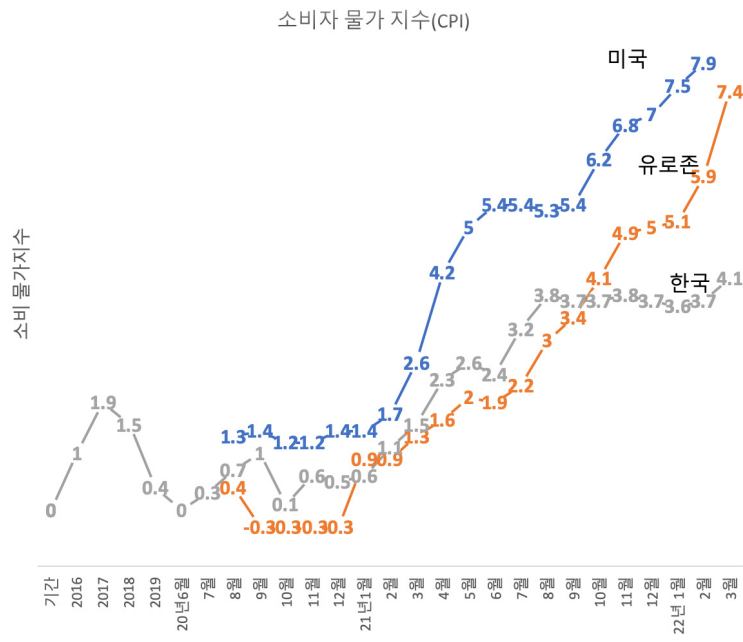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개인과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대출을 지원하는 등 많은 돈을 부렸다. 그 결과 시중에 쓸 수 있는 돈, 통화량은 많아졌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사람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소비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소비 부진에 대응해 줄였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많은 원자재가 필요한데,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원자재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 원자재 수요가 급증했다. 주요 원자재 중 하나인 구리 생산 세계 1, 2위인 칠레와 페루는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광산 채굴이 더뎠고 구리 공급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선박의 운임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세계를 오가는 물자의 양이 줄어들자 해운업계도 운항 스케줄을 줄였는데 최근 들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송할 배를 구하기 어려워 항공 운송을 찾는 기업이 늘면서 항공 운임도 오르고 있다. 2021년 5월 10일 항공 화물 운송 지수(TAC Index)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과 함께 운임까지 상승하게 되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자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이처럼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자 인플레이션(Inflation)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인 소비자 물가 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일반 가구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평균적으로 나타낸 물가 지표이다. 이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 조사하는 품목은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그래프를 보면 한국과 미국, 유로존 모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22년 2월 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이 7.9%로 예상을 크게 웃돌며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곡물 가격 등의 급등으로 인해 점점 심화되고 있다.



문제 1

지문 <가>를 읽고 1920년대 독일에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과 그 영향을 정리하고, 아래의 글에 등장하는 영국의 실업자가 오스트리아 최고급 호텔에서 묵을 수 있었던 이유를 논술하시오. (800~1000자)

“한 국가에 인플레이션이 3년 동안 급속히 진행되어 화폐 가치가 불안정해지면 해외 자본만 남는다. ...중략... 오스트리아는 ‘해외 자본의 집결지’가 되었고 숙명적인 ‘외국인 특수’를 누렸다. 비엔나의 모든 호텔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돈독이 오른 자들은 호텔에 모여 칫솔에서 토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다.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골동품이 강도나 약탈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헐값에 팔렸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전에, 이들은 돈이 될 만한 것은 전부 싸쓸이해갔다. 나는 역사의 산증인으로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당시 가장 유명한 최고급 호텔 ‘드 유럽 인 잘츠부르크(de l’Europe in Salzburg)’는 영국 실업자들에게 장기 임대를 한 상태였다. 당시 영국의 실업자 지원 혜택은 상당히 좋았다. 그 돈으로 영국의 빈민가를 전전해야 했지만 오스트리아에서는 여유롭게 살 수 있었다.”

- 슈테판 츠바이크(Stefan Zweig) 『어제의 세계』에서 발췌

문제 2

제시문 <나>에 나타난 현상의 원인을 기술하고, 그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의 기대효과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논술하시오. (800~1000자)

-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올렸다. 지난해 8월 이후 네 번째 인상이다. 한은은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조정했다. 금통위원 여섯 명의 만장일치였다. 현재 한은 총재가 공식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 중앙일보 2022년 4월 15일
- 제롬 파월 Fed(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더 빨리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말 금리 예측 수준은 연 2.75%다. 내년에도 서너 차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 중앙일보 2022년 3월 18일